

과학기술 분야 여성인력의 수급 현황과 과제 우수 과학기술인력 확대하려면 여성과기인 채용 늘리자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수급전망에 의하면 2022년까지 박사급 인력은 1만2천 명이 부족한 반면, 전문학사 22만 명, 학사 19만7천 명, 석사는 3만6천 명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 인력 중에서 박사급의 고급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우, 2012년 이공계 박사 중 여성졸업자는 1천 127명으로 2011년부터는 연간 1천 명 이상이 배출되고 있다(그림 1).

2012년 여성 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 비율 13%에 그쳐

‘제1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한 2004년의 574명과 비교하면 거의 2배의 규모로 늘어났으나, 비율로는 16.3%에서 21.3% 정도로 늘어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남성의 연간 규모가 1천 223명이 늘어난 것에 비해 여성은 553명이 늘어난 것에 불과하여 고급여성인력의 육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인력 육성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미래의 경력개발 전망과 비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신규 정규직에 대한 채용목표제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04년 20.0%에서 2009년 26.6%까지 증가하다가 2012년에는 19.2%까지 떨어져 제도를 도입한 2004년보다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기술직을 포함한 정규직 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 중 여성비율은 2004년 10.1%에서 2012년 13.0%로 늘어나는 것에 그쳐 인력의 배출이 늘어나는 것과 비교할 때 적절한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글_문미옥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
momun@wiset.or.kr

글쓴이는 포항공대 물리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화여대 WISE거점센터 연구교수, ㈜경원유글로브 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특히, 여성의 비율이 이공계 대학의 학사가 30.5% 수준에서 석·박사로 가면서 27.5%, 21.3%로 줄어들고 이공계대학에서 비전임교수 19.2% 또는 전임교수 12.3%로 경력이 높아질 수록 비율은 매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고급인력의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그림 2). 한편으로 공공기관이나 이공계 대학의 정규직은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는데 비해 민간기업의 연구기관에서는 정규직 중 여성비율이 2006년의 7.6%에서 2012년 13.2%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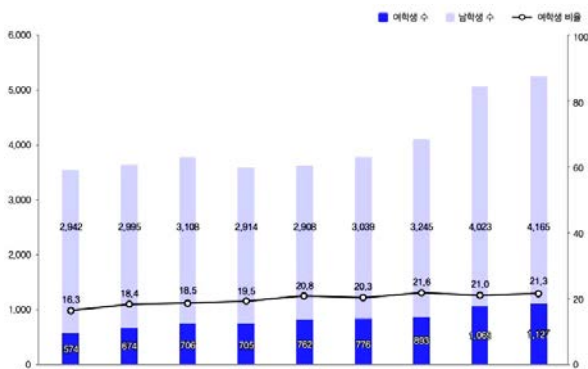
비정규직 많은 고급 여성인력

기관유형별로 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의 고용분포를 살펴보면, 이공계대학은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비율은 높지만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 연구기관의 여성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은 98.0%가 정규직이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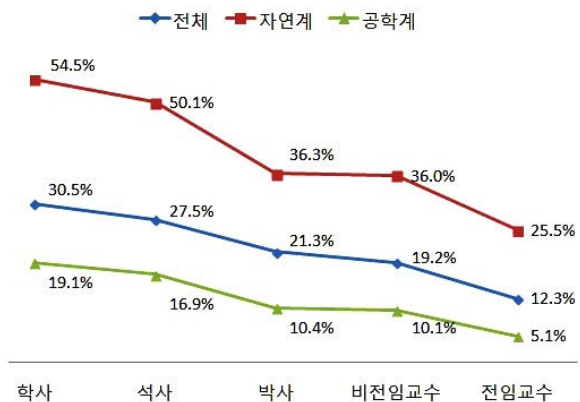
이공계대학 비정규직 여성인력 중 34.7%가 박사학위자로 많은 고급인력이 시간강사나 계약직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 경력개발을 통해 중견급 관리자나 리더로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전체 관리자급 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 중 여성은 7.0%에 불과하며 이는 2007년의 6.2%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동향은 연구과제 책임자 중 여성비율이 2012년 7.8% 수준에 그친 것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 가능한 비정규직 환경, 경력 유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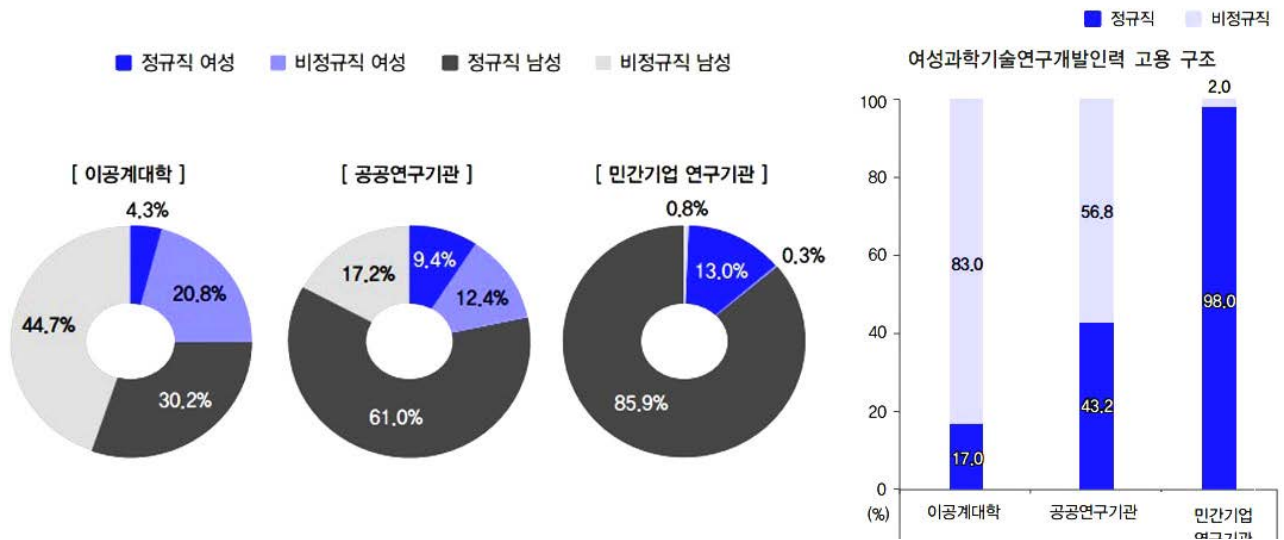
과학기술 분야 여성인력이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이공계대학에서 일을 하는 이유로 경력을 완전히 단절하지 않고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을 꼽았다. 이공계 대학 연구원의 경우 대부분 대학교수가 책임자인 연구과제의 계약직으로 산·학협력단과 비정규직 채용계약을 하게 된다. 출퇴근뿐 아니라 근태 등의 인사관리를 유연하게 적용받음으로써 여성 경력단절의 가장 큰 사유에 해당하는 임신, 출산, 육아 등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 1. 2004~2012 이공계 여성 박사 졸업자 현황
원자료: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2004~2012), 자료: 2012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보고서



▶▶ 2. 과학기술연구개발 여성인력 누수 (2012)
자료: 2012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보고서



▶▶ 3. 기관 유형별 과학기술연구개발 인력 고용분포(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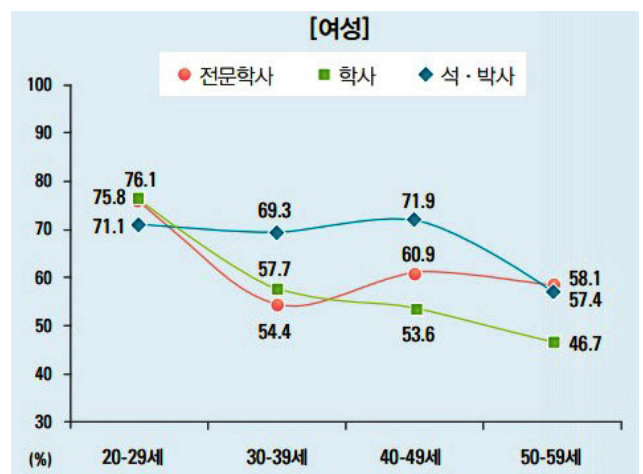
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기혼여성 중 비취업자가 거의 절반에 이른다. 비취업자 중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 여성은 65.3%에 이른다. 경력단절 여성 중 이공계열의 비중은 25.0%로 배출 비율인 28%보다는 낮다. 특이한 점은 이공계 전공 여성의 학위별, 연령별 경제 활동참가율을 보면 석·박사 학위를 가진 여성의 경우 우리나라 여성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30대의 경제단절에 의한 하락 현상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성과기인 현안 문제 적극 해결해야

지난 4월, 미래창조과학부는 ‘제3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14-’18)’을 발표하였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사회, 경제적 역할을 강화하면서 특히, 리더양성을 위한 ‘과학기술여성인재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경력개발에 필요한 산·학·연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역량(Ability), 도전(Challenge), 균형(Balance), 다양성(Diversity)의 4개 가치를 지향하면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과기인 지원, 여성창업 등 창조경제에 대한 역할 확대, 양성이 조화로운 과학기술 환경 조성 등 여성과기인의 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미 배출된 여성인력은 더 나은 발전을 만들고 다음 세대는 비전을 갖고 따라 갈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계획이 담겨 있다. **ST**



▶▶ 4. 이공계 여성학위별 경제활동활동 참가율(2012)
자료: 2012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재분석 보고서,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2014)